

buddhanews.com

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는다면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25면에서 계속

질문자(3남): 잘 알겠습니다. 스님, 이와 다르게 먼 거리에서 광주에 오셨으니 스님께서 주고 가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고 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질문자(초등학생·남): 큰스님, 저는 평소 우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 잡지나 만화 같은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 혜성과 목성이 언젠가는 부딪친다던데 그게 저는 걱정이 돼요. 부모님께 여쭙 보니 목성과 혜성의 마음조차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큰스님: 질문 잘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달렸다.' 했죠? 그랬는데 사실이 부처님 법이란 아주 묘하고 광대해서... 이것은 부처님 법이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진리가 그러해! 그러나 '혜성이 목성하고 부딪치면 어떨까?' 하는 너의 마음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치지 마라.' 한다면, 네가 한 잘나에 혜성이 되면 둘이 아니어서 그 혜성이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딪치지 않아요. 그 혜성이 부딪치려고 할 때 네 마음이 혜성이 돼 버리면 혜성이 부딪치지 않아요. 혜성이 잘못돼서 이 지구를 건드린다 하더라도, 즉 말하자면 공부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혜성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끔 내가 혜성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혜성 물질들 멀리 끌고 가게 돼 있으니까요. 하하하... (대중 박수) 진실로 믿어요. 절대로 거짓은 안 해요.

질문자(5여):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스님께 질문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수행해 온 과정을 스님께 말씀드리고 꼭 여쭙고 싶은 질문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금강경』을 읽고 『천수경』을 읽고 또 법문을 들으면서 생활을 하고 불자로서 보시와 자비를 실천해 가면서 살아간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자국이 오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내 마음이 참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한마음 공부를 한 뒤부터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하고 하나하나 굴러면서 놓아 가면서 생활을 해 간답니다. 경을 통한 그런 공부를 할 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스님, 눈에서 버를 가져다가 한 알 한 알 쌀을 만들어서 써서 밥술에 넣고는 불을 켜지도 않고 배부르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내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부터는 밥을 해서 식탁에 올려놓고 수저로 퍼먹고 있어요, 스님. 너무나 스님께서 자제하 잘 가르쳐 주셔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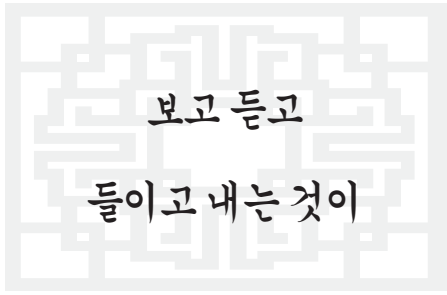
큰스님: 아주 표현 잘했소. (대중 박수)

질문자(5여): 밥을 한 수저씩 한 수저씩 먹어요. 니 배부르고 배고프고가 어디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면, 떠먹으면 배부를 건 자동이잖아요, 스님.

큰스님: 아, 참 좋구먼! (대중 웃음, 박수)

질문자(5여):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동안에 경 공부를 하고 또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 스승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회향 올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갈 것을 정말 약속드리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그래서요, '경을 보되 보지 말고, 네가 경을 보지 말고 또 경을 너를 보지 않도록 해라.' 한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경을 보는 놈도 그놈이 안 보는 놈도 그놈이예요. 그러니 잘했든 못



했던 경을 제 가지고 굴러든 말았든 그놈이 다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한다면 '경을 무수히 보되 보지 않고 진실을 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그저 내가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닦힌다 하더라도 겁 안 내고, 우리가 배고프면 밥 떠먹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편과 진리로써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연은 만나기도 참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못났든 잘났든 돈이 없든 있든 그것을 다 떠나서 말입니다. 죽을 먹는다 하더라도 '죽 먹이는 놈도 너니까 쌀밥 주는 놈도 너다.' 하고 그렇게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바로 죽이 쌀밥으로 화해서 쌀밥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5여): 스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스님 법문을 직접 듣고 테이프도 듣고 공부를 하면서, 또 한마음오전을 읽어 가면서 늘 그것을 참구하고 또 참구하면서 보는데 스님께서는 늘 '안에서 구해서, 자기 안에서 구해서 마음을 밝혀 나가고 깨쳐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만 마음을 밝히고 안으로 잘 구할 수 있는가? 아까 스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와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만날 한 말이 그 말이지, 뭐.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이 아주 진짜로 믿고 절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주 급박할 때, 물에 빠져 다

죽어갈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 그 정도가 돼야 '아이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아주 그냥 절박하게 하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나한테 전화를 할 때는 아주 절박하게 합니다. "알았어, 절박하게 관해 봐!" 그러면 그 이튿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전화가 또 푸르르 옵니다. "아이고, 전화하고 나니까 그냥 잊었어요, 스님, 참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응, 네 전깃줄과 내 전깃줄이 둘이 아니게 돼서,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지, 내 전깃줄이 제일이고 네 전깃줄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전깃줄하고 내 마음의 전깃줄하고 같이 합쳐 놔드니까 불이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낮게 했다 내가 낮게 했다 하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진정으로 믿어야. 자기 뿌리를 자기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또 스님네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네?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을 이끌어 가는 진실한 당신을 믿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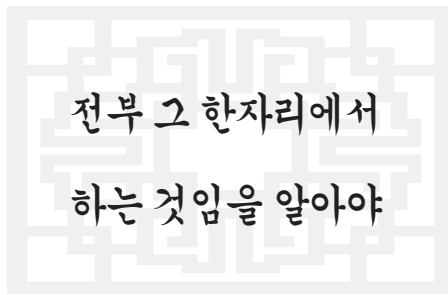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이나 각처의 스님네들이 이끌어 주는 그것은 역시 길잡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부터도 길잡이밖에 안 되는데 방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스님네들이 방편을 안으로 두게끔 썼으면 좋겠는데 바깥으로 기도하고 절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가톨릭교고 기독교고 전부 그래요. 하여튼 모두 바깥으로 기도하게 하고 바깥으로 믿게 하거든요. 주체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 서 진짜 자기부터 알아야 일체를 다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는데 모두 타의에서 구하고 있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세 계적으로 봐도 다 그래요. 알라신교나 티베트 불교나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그런 사람들 다 만나 봤고, 또 어떻게 하나 기웃거리 봤습니.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가는 격이 많거든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아예 뒤바꿔 놓고 가르치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 우리가 경 한 번을 본다 하더라도 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 이름을 알고 말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진실한 자기, 못났든 잘났든, 정말 왜소하고 못나서 애쓰는 그러한 사람도 역시 자기 원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소 그 자체 불성은 변하지도 않는 거고 키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자체의 불성은 사람이 못났든 잘났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를 떠난 자립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 자리에서 당장 급하신 분들이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겠다 하더라도 내면으로 믿고, 당장 '주인공 뿌리아, 너만이

알고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길 믿고 진정코 진실한 마음으로 해 보세요, 안되나 되나!

질문자(5여): 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되기 위해서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방편이자 바로 부처님께서 불난 집에서 애들을 구하기 위해 '사랑 줄 테니 나오나라.' '내가 너희에게 장난감 줄 테니 나오나라.' 이러한 거와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줄도 모를 거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아시고요, 하여튼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진실히 해보십시오. 다가오는 그 괴로움을, 애고를, 번뇌를



번뇌라고 생각지 마시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시고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질문자(5여):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스님, 천도재를 지낼 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천일기도를 드리는 천도재일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천일 천도재를 지냈었고 또 백일 천도재가 있어서 또 거기 동참해서 천도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도 부족하지 대덕 스님을 모시고 또 천도재를 지냈거든요. 천도재란 이렇게 자주 자주 여러 번 지내야만 조상 천도가 다 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중생이 다 천도가 되는지요.

큰스님: 여러 번을 지내야 된다. 안 지내야 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 떡을 하나 집어 먹은 분들이 천도재를 할 때는, 즉 그 영혼이 들어와서 그 스님의 마음을 볼 때에 '아! 이 세상은 모두 떡 하나에 속하는 거로구나.' 하고 떡 하나에 다 있는 것을 알게 되지만, 즉 스님의 마음을 꿰뚫어보기 때문에 그 스님의 마음 속에 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님네들이 상하를 차려 놓으면 얼마를 들어서 상을 차렸다가 하는 것을 스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스님네가 잘 알죠. 그러면 영혼이 들어와서 스님네가 상차려 놓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게 되죠. 이 세상이 떡 하나에 속한다는 것은 모르고요. 그러니까 떡 하나를 집어삼키고 바다를 삼키고 토할 수 있는 그런 스님네라면 보지 않아도 되고 차리지 않아도 되고 여러 번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스님네가 아니라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 그러니까 여러번 공부하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으면 스님네가 어쨌든 그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부처님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내 마음이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한 술의 찰죽이 끓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끓는 방울이 많다 하더라도 한 술에 있으니까요. (대중 박수)

질문자(6남): '마음을 믿는다' 하셨는데, 스님 지금 듣고 계신 것이 마이크지요?

큰스님: 예.

질문자(6남): 믿습니까?

큰스님: 허허! 믿든 안 믿든 듣고 있는 놈이 누굽니까?

질문자(6남): 네, 스님 앞의 꽃은 붉습니다.

큰스님: 붉은 거든 푸른 거든 그놈이, 서 있는 놈이 붉다 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 있는 놈의 말을 누가 하게 했는지 그것만 아니면 됩니까.

질문자(6남): 노래를 한 자리 불러 드릴까요?

큰스님: 아, 부르시든지 그거는 자유죠.

질문자(6남): 하하하... 그러면 이제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관한다고 했는데 눈이 몇 개입니까?

큰스님: 눈이 없으니가 걱정이요.

질문자(6남): 저는 있다 해도 삼십 방망이, 없다고 해도 삼십 방망이를 내리겠는데요. 역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큰스님: 그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 건 다, 삼십 방망이 삼십 방망이 하는 거는 다 말장난이예요.

질문자(6남): 육십 방망이도 말장난이겠군요.

큰스님: 육십 방망이도 말장난이구요, 백 방망이도 말장난이구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게 하는 놈이 그놈이요, 지금 서 있게 하는 놈이 그놈이요, 바로 쳐다보게 하는 놈이 그놈이요, 듣게 하는 놈이 그놈이요, 모두가 한 놈인데 그렇게 많은 놈이 됐다가 적게 되고 적은 놈이 됐다가 없어지고 하는 불가사의한 그런 놈이 돼 보십시오.

질문자(6남): 예, 스님, 눈을 깜빡 한번 해 보십시오.


큰스님: 그러면 뭐 아랫눈썹 윗눈썹 깜빡, 아주 깜빡하세요.

질문자(6남): 네, 감사합니다.

큰스님: 허허허! 너무나 깜빡새가 돼서요, 아주 '무(無)!' 해 버렸소. 허허허... 언어도 불지 않는 자리가기 때문이죠.

*위 법문은 1994년 4월 24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외 100가지 보유

-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kg 빠짐) - 칠선초 ₩88,000
-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87,000
-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85,000
-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86,000
-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88,000
- *만성변비 -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는 분 ₩80,000
-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85,000
- *어린이아, 학생, 성장발육 - 만병초, 녹용, 차가버섯 38가지 ₩150,000
- *각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 *여자가 얼굴이 예뻐질 때 기미, 주근깨, 화장독 제거 - 영능향 삼매자(희귀약초) ₩88,000
-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 보약 - 키가 쑥쑥 자람, 공부 잘할 체력유지 ₩88,000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한방 (韓方) 치료로

간질(환) 백반증(백납) 건선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F

“대한한 의사 협의 의료광고 심의필”
 “제 090226-중-482”

전문범음법(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중무원 범음, 법제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범제,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설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관공 : 삼보통칭, 상단 · 종단관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전문과정(4개월)
 - ◆시연,대령,관공,응호계(신종작법104부),지장청,시용도청,전시식,관음의식,삼유영반,화엄의식,구병의식,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리나비바라,회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승,오잠작법
 - ◆사 물 : 대칭,북,광쇠,호적(대평소),전통의식타반
 - ◆특 강 : 괴불이온,종사이온,종사영반,경안의식,시달림(대비),예수재의식 등
- 라. 강주 : 김범음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중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분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범음법제 교육원

산세 수려하고 청정계곡에 위치한 천혜의 명당

- 실버타운 요양원 남골당 설립 최적지
- 대지 600평, 관리지역 2,400평, 국유지 10,000평 하천부지 3,000평 사용
- 법당 30평, 요사채 4동 150평
- 방 13개, 수세식 욕실 화장실 6개 심야전기 보일러
- 영동고속도로 세말 IC에서 5분거리 (서울에서 1시간 30분)
- 가액 : 17억

문의 033)345-5597
 011-771-5597